

 교육부				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10. 21.(월) 배포</p>	
보도일	<p>2019. 10. 22.(화) 08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·방송·통신 10. 22.(화) 08:00 이후 보도 가능)</p>				
담당과	대입정책과	담당자	과 장	송근현	(☎ 044-203-6368)
			사무관	이정규	(☎ 044-203-6367)
			교육연구사	이상모	(☎ 044-203-6366)
			교육연구사	김선혜	(☎ 044-203-6679)
			주무관	이학희	(☎ 044-203-6025)

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

- ◆ 11월 14일, 전국 1,185개 시험장에서 548,734명 수험생 수능 실시
- ◆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정적 수능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(이하 '수능')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「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」을 10월 22일(화)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.
 - 이번 대책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,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, 자연재해 대비, 문답지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.
- 2020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(목)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,185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.
 -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6,190명이 감소한 548,734명이며,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

《 교통 소통 원활화 》

◇ 시험일 아침 수험생·감독관·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 급증 예상,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 추진

- 시험 당일,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'오전 9시'에서 '10시 이후'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.
 - 아울러,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등교 시간(06:00 ~ 08:10)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대중교통 수송 원활화를 위해 전철·지하철, 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기존 2시간(07:00 ~ 09:00)에서 4시간(06:00 ~ 10:00)으로 연장했다.
 - 수험생의 등교 시간대(06:00 ~ 08:10)를 고려하여, 지하철 증회 운영, 시내버스·마을버스의 배차 간격 단축 및 증차 운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.
 - 교통여건에 따라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여 지하철역·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하며,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 이동로에 배치·운행하여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도 강화된다.
 -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.

《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》

◇ 시험일 당일 영어영역 듣기평가(13:10~13:35)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험장 주변 소음 최소화 환경 조성

- 수능시험에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:10 ~ 13:35(25분간)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하여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.
 -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여 소음통제시간에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였으며, 포 사격 및 전차이동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하였다.
- 아울러, 시험장 주변에서 차량 서행 운전과 경적 자제를 요청하고, 야외 행사장, 공사장, 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여 소음이 최소화하도록 하였다.

《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》

-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은 전국 1,185개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.
 - * 11월 8일(금) ~ 14일(목), 기상청 누리집(www.kma.go.kr)에서 날씨 정보 제공
 - 기상 악화 등 돌발적 기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·도별로 도서·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, 강우·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.
- 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진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진 발생 대처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.
 - 시·도교육청에서 시험장 배치 시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, 지진 피해 학교 및 내진 미설계 학교 등 취약건물의 경우 배치 전 안정성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.
 - 특히, 포항지역 시험장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,

그 외 시험장에 대해서는 시·도교육청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
- 예비소집일에는 감독관 및 수험생 대상으로 시험지구별·학교별 여건에 맞게 사전교육(또는 모의훈련) 등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 상황 대처 요령에 따른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.
- 환경부에서는 10월말부터 산업단지, 건설공사장, 농어촌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는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.

《 수능 문제지 및 답안지 안전관리 》

- 수능시험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, 보관, 회수를 위해 경찰청, 시·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였다.
-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, 문답지 인수, 운송, 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부와 시·도 교육청에서 86개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,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